

# 70年代의 韓國圖書館界의 展望

—協會 事業을 中心으로—

崔 根 滿  
(韓國圖書館協會 事務局長)

## 目 次

### 序

1. 司書職 特殊 勤務手當
  2. 司書職 T.O. 配定
  3. 學校圖書館 施設基準
  4. 國際協力과 紐帶強化
  5. 獎學基金의 確保
  6. 機關誌의 補強
  7. 書誌事業의 推進
  8. 長期開發計劃 推進
  9. 圖書館學書 刊行
  10. 協會 會館 建立 推進
- 結 言

### 序

1970年代는 우리 나라 온 國民이 잘 살아보려는 意志로 힘을 모아 第2,3次 經濟開發計劃의 成功의인 達成과 自立國防이라는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야 하는 막중한 時期이기도 하다. 또한 後進國에서 中進國으로 前進하려는 轉換의 때이며, 우리 民族 3千萬이 來日이 있다는 希望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스스로를 自覺하므로써 보다 繁榮된 社會의 建設을 위한 努力과 애쓰는 숨소리가 全國의 방방 곡곡에서 울려 퍼져 가난에서 벗어나 富를 누리고자 하는 熱望으로 온 겨레의 힘이 總 集中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여망인 것이다.

대망의 70年代를 맞아 새로운 技術의 開發과 革新으로 産業을 發展시키고 新製品의 研究開發은 勿論 生産品의 單價 節減으로 國際競爭에서 싸워 이길수 있는 土 産을 마련하는데 基礎的이고도 가장 重要한 文獻의 技術情報管理를 擔當하고, 온 國民의 教養을 높여야 하는 社會教育和 學校教育의 보다 充實을 기할수 있도록 모든 文獻을 案內하고 提供하는 任務를 擔當한 우리 圖書館界도 60年代에 못다 이룬 많은 問題들을 解決하여야 하며 또 새롭고 意慾의이며 創造的인 事業들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韓國圖書館協會는 創立된지 겨우 15年 아직 青年의 少年이다. 青年期에 접어드는 70年代를 맞아 館

界의 團結된 힘과 努力으로 다음의 問題들이 解決되어야 하며 새로운 일들이 開拓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 1. 司書職 特殊勤務手當

司書職의 特殊勤務手當 支給을 위한 公務員 諸手當 支給 規定을 改正하여 放送公務員과 稅務公務員 等に 支給되는 것과 같이 司書職에 대한 特殊勤務手當을 支給하도록 要請한지도 數年이 되었으나 아직도 結實을 보지 못하고 있다. 司書職은 大學에서 專門教育을 받고 專門職을 認定하는 資格證을 法에 依하여 國家가 發給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書庫에 과문혀 있는 모든 文獻을 主題別로 그 內容을 研究 分析하고, 누구에게 活用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確認하고 該當 研究家나 市民에게 利用되도록 하는 努力과 書誌索引 等の 研究的인 作業이 繼續되어 文獻의 情報를 보다 正確하게 提供하는 일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어느 職種보다도 먼저 特殊手當이 支給됨으로써 最低의 生活과 身分이 保障 되어 自己 任務에 總力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이들 研究된 學術 및 技術에 관한 文獻情報가 大規模 工場을 建設할 때 가장 적절하고 精確한 정보로 신속하게 提供되었다면 이의 事前 研究로 보다 科學的이고 正確한 計劃에 따라 施設이 推進될때, 그 工程期間의 短縮은 勿論 보다 發展된 施設 및 技術을 習得하여 차질없는 工程과 不必要한 部分의 除去 등 莫大한 國家의 經費가 節減될 것이다. 이와 같은 重要性을 文教當局이 1968年에 認定하고 關係 部處에 法規 改正과 豫算上의 反映을 要求하여 거의 이루어질 단계에 있었으나 豫算當局은 法規의 先改正을 要求하고 또 다른 部處에서는 豫算上에 먼저 反映이 되면 改正해 주겠다고 미루어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問題는 各 圖書館에 從事하는 우리들 司書職의 처우문제인 만큼 短時日에 解決될 수 있도록 各圖書館에서는 豫算面에 手當이 策定되도록 努力하고, 本協會는 法規 改正을 文教當局의 協助를 얻어 推進하는데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司書職 TO 配定

司書職의 定員配定 問題는 公立의 公共圖書館과 國公立의 綜合大學, 大學, 教育大學, 初級大學과 初·中 高校에 配定되어야 할 一般司書와 司書教師의 法定 定

員의 配定을 意味하는것으로 公共圖書館中 地方自治團體에 所屬되어 있는 圖書館에는 司書職種이 없고 教育廳에 所屬되어 있는 圖書館에만 司書職種이 있는데 이는 國家公務員法에만 行政職群속에 司書職種이 있고 地方公務員法에는 司書職種이 없는 法規上에 矛盾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의 解決에는 地方公務員法에 司書職種을 삽입하여 地方自治團體에 所屬된 圖書館과 教育廳 소속의 圖書館으로 二元制를 擇하여 兩立시키느냐 아니면 教育廳으로 所屬廳을 一元化하여 司書職의 TO를 確保하여야 하느냐 하는 先決問題가 남아있는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다. 그리고 大學校, 大學, 教育大學, 初級大學, 初·中·高校圖書館에는 圖書館法 施行令 第6條 1, 2, 3項에 定해진 法定 TO가 配定 되어야 하나 豫算關係上 全體 教育公務員의 增員이 어렵다는 理由로 司書職員과 司書教師가 配定된 곳 보다 되지 못한 곳이 더 많은 實情이다. 이 TO 配定의 問題는 各圖書館의 끊임 없는 要請과 本協會가 關係 當局과의 直接 間接으로 推進하는 努力이 一致함으로 해서 解決되어야 할 問題에 하나다.

### 3. 學校圖書館 施設基準 制定

圖書館法 第25條 2項에서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하도록 되어 있으나 同法 施行令 제2 조 2項에서 學校圖書館 施設基準은 따로 定하는 學校施設基準令에 의한다로 되어 大學인 경우 一人當 30冊 이상의 책이 確保되어야 된다는 基準 때문에 教科課程과 관련되는 자료의 選定 購入에 앞서 卷數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아무거나 사드리는 경향이 있어 學習資料 購入費가 많이 浪費되어 커다란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 圖書館에 대한 施設基準이 時急히 따로 制定되어 合理的인 資料가 選擇購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浪費와 損失을 막고 進전한 學校教育을 뒷 받침 할 수 있는 基準의 制定 公布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4. 國際協力과 紐帶強化

지난 해 5月28~30日까지 3日間 亞細亞 太平洋 地域 圖書館 國際會議가 開催되어 10個國 30餘名의 代表와 120餘名의 傭서버가 參席한 가운데 成功裡에 끝마친바 있다. 同 國際會議가 열리기까지 보이지 않는 애로와 어려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圖書館 關係 國際會議는 檀君 先祖가 建國한 이래 처음이며 또한 經費도 汗돈 없이 준비에 착수 하였기 때문이다. 協會를 아끼는 同職者와 關係機關에 있는 분들은 만류하는 측도 없지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協會가 推進해 온 일들이 大部分 無에서 有를 生産해 온 經驗과 會員들의 熱과 誠이 한때 뭉친다면 무난히 이끌어 나가리라라는 信念을 갖고 推進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文教當局의 積極적인 協助와 美大使館, 美

軍 산하 圖書館人的 후원 그리고 本協會 任員과 會員, 事務局 職員이 一心 同體가 되어 誠意껏 일하며 애쓰 보람으로 參席한 各 代表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찬과 부러움을 받았으며, 亞細亞 地域에 있어서의 韓國 司書들의 פק기로 國威를 선양하고 同地域에서 圖書館問題의 “이니시아티브”를 잡을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된 것이다. 그 한 예로 지난 8月25일부터 28日까지 4日間 덴마크의 首都 코펜하겐에서 열린 第35次 國際圖書館協會聯盟 (IFLA) 總會 開會式 때 80餘個國 500餘名의 各國 代表가 參席한 자리에서 前記 國際會議가 韓國 首都 서울에서 開催되었다는 仔細한 報告를 同聯盟 事務局長으로부터 있었다고 韓國代表로 參席하신 姜周鎭 會長님의 歸國후 말씀하신 바로 傳聞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30餘個國 200餘 곳과 出版物 等 各種 情報가 交換되고 있으며, 美國, 日本, 호주, 태국, 필리핀, 自由中國, 英國, 뉴질랜드 等과 專門職 交流, 出版物 交換, 司書職 海外 派遣 教育訓練이 이루어질 展望이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70年代에는 우리 圖書館인들이 海外에 나아갈 수 있는 機會가 많이 있을 것으로 展望되며 아울러 우리 圖書館人들 各自의 語學實力의 배양이 要請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IFLA 總會에 數10名씩 代表를 參加시키는 外國과는 比較할 수 없으나 1,2名이라도 每年 우리 代表를 參席케 하여 國威를 선양해야 할 것이다.

### 5. 獎學金の 確保

獎學金 支給의 必要性은 數年前부터 館界에서 論議된 바 있으나 韓國 司書들의 조달리는 살림과 協會의 어려운 財政關係로 그 基金 確保가 여의치 못하였다. 4年制 學部 課程의 圖書館學科가 4個大學, 特殊課程 機關이 2個大學에 設置된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圖書館界에서 支給하는 獎學金 制度가 없어 뜻있는 館界人士 및 會員들이 오래 전부터 論議하고 熱望하여 오던 숙원의 하나였다. 지난번 開催된 圖書館 國際會議時 美8軍 산하 外國圖書館人들의 誠金으로 4萬원의 獎學金을 기증받고 그후 1萬원을 또 기증받은바 있으며 이를 契機로 70年度末까지 多少 無理가 되더라도 100萬원의 獎學基金의 마련을 目標로 推進中이다.

지난 8月末 日本 協會 事務局 職員들의 誠金 2萬원이 募金되어 現在 7萬원이 確保되었다. 今年度 各會員 圖書館의 誠金과 外國에 있는 韓國 司書들의 誠金 및 其他 方法으로 基金을 마련 預置하고 이의 利子로 71年 이후 每年 獎學金을 支給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 運動에 많은 參與가 있기 바라는 마음 간절 하다.

### 6. 機關誌의 補强

協會의 심볼인 機關誌 “도협월보”는 1957年7月1日 20面の 프린트版으로 始作되어 58년에는 2個月씩 合刊

하였고 또 그 다음 해에는 8切紙의 兩面 뉴우스로 發刊하는 등 가진 애로를 겪어 오다가 60年 3월에 비로서 約 30面 菊版의 크기로 活版 印刷로 刊行케 되었다. 65年 12月號부터 책 크기가 4.6倍版 읍셋 表紙의 갱지로 發刊하다가 66年 1.2月號부터 銅版 表紙 中質紙로 1,2月과 7,8月號 合刊으로 發刊하였다. 그동안 財政難과 原稿의 수집 印刷所의 事情 등 무수한 難關을 극복하며 發展을 거듭하여 왔다. 今年부터 合併을 進제하고 每月 月初에 發刊年 12回로 內容의 刷新과 筆者의 強化 등으로 館界의 代辦은 勿論 圖書館人의 自質向上과 教養을 높이는데 總力이 集中 될 것이나 또 하나의 애로는 예산과 人力이다. 이를 극복하고 創刊 15年만에 비로서 本 制度에 올려 놓게 된 것을 會員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 7. 書誌事業의 推進

各 文獻의 主題別 書目이 하루라도 빨리 發刊 完了되는 날 研究者나 教育家, 教授 學生들이 專功分野 研究에 期間을 短縮하고 보다 豊富한 資料의 活用으로 科學的이고 正確한 研究論文이 生産되고 學習活動에 充實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外國人이 韓國學을 研究하는데 크게 도움을 줌으로서 우리 나라의 文化가 外國에 넓히 紹介되어 國威가 선양될 것이다. 더우기 우리는 祖上들의 豊富한 文化遺産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活用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分野別 書目이 作成되지 못하고 書誌統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60年代 後半에 접어들어 國會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 各 研究所, 大學圖書館 등에서 많은 書目들이 發刊되고 있으나 各 分野別로 고루게 書目이 나오려면 아직도 까마득한 立場에 있다. 어느 機關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따질 때가 아니라 각 기관에서 발간되는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統制整理되고 아직 作成되지 못한 많은 分野의 書目이 最短期間에 나올 수 있도록 當局은 充分한 豫算을 割愛해서 보다 積極的인 支援과 協助가 있어야 하겠고 아울러 圖書館人 스스로가 보다 큰 使命感으로 相互 協助하고 권장하여 바람직한 열매가 生産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 이러한 國家的인 作業들은 圖書館人和 學者가 서로 協同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으로도 效果的인 作業이 이루어 질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통감한 本 協會는 1968年 8월에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산하에 韓國書誌事業會를 組織하고 學界 代表 30名과 圖書館界 專門人 30名 約 60名의 委員으로 6個 學問 分野別 專門委員會를 구성하고 1969年 初 事業으로 舊韓國古文書解題目錄의 整理 作業을 完成시킨바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內容의 文書가 어느 程度 있는지 조차 모르던 것이 그 種類, 量은 勿論 이의 整理로 國

內外學者 (특히 社會科學 分野 政治, 外交, 經濟, 歷史, 國文學研究資料)에게 活用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그만큼 研究에 지름 길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事業會의 目的은 어느 정도 고르게 書目들이 발간된 후 이러한 書目を 土臺로 전자계산기 (IBM)에 役入할 수 있는 準備作業을 活潑히 推進하여 學界나 產業界가 必要로 하는 모든 情報를 電子計算機가 提供奉仕함으로써 보다 빠른 研究와 產業發展의 속도를 증하는 데 積極的으로 寄與하고자 하는 것이다.

### 8. 長期開發計劃

우리들은 韓國圖書館協會를 中心으로 60年代에 있어서 文教當局의 機構를 改編하여 圖書館局이나 不然이면 課·係라도 新設하여 圖書館行政의 體系를 세워 社會教育의 發展을 期하고 學校教育에 적극적인 뒷 받침을 하게 하며, 貴重資料의 海外流出防止, 資料의 複寫와 적극적인 活用, 外國資料의 적시 수입, 書誌統整 指導 監督 등의 業務를 분장케 할 것을 끈질기게 要求하였으며, 더 나아가 大統領 또는 國務總理 直屬의 國家開發 및 近代化 作業의 原動力이 되는 頭腦開發과 人類 文化 發展에 實質的인 利益을 주게 하는 모든 文獻情報의 資源인 圖書館問題를 다룰 자문위원회 설치를 機會가 있을 때 마다 促求한바 있으나 넉넉치 못한 政府의 豫算과 其他 여러가지 事情 등으로 아직 目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開催된 國際會議에 參席한 各國의 代表들의 意見도 政府는 반드시 圖書館을 國家 資源으로서 認定하고 各國에 現存하는 情報資源의 範圍를 決定하기 위하여 圖書館諮問委員會를 設置할 것을 제1次的으로 主張 하였다. 이와 같은 行政機構나 委員會는 圖書館人들의 慾心으로만 設置하여 달라는 것은 아니다. 產業, 軍事, 教育, 文化, 行政 어느 分野를 막론하고 學術 및 技術의 文獻情報 管理가 貴重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고, 效果的인 技術情報管理로서의 운영의 모를 거둔다고 하면 國家의 發展의 期間을 단축하고 豫算이 節約되기 때문에 이미 先進諸國에 있어서는 이러한 行政機構나 委員會를 設置하고 모든 分野開發에 있어서 바람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우리도 70年代에는 이러한 體制와 制度가 이루어 지리라고 展望되거니와 協會가 70年度에 自體의 長期開發委員會를 組織하여 國內外 專門家들로 하여금 長期開發計劃(年次 計劃案)을 成案하여 政府가 政策을 수립하는데 圖書館 開發計劃의 資料를 提供하여 國家로 하여금 同 計劃을 採擇하도록 推進할 豫定이다.

### 9. 圖書館學書 刊行

우리 나라에 새로운 概念의 圖書館學이 導入된지 10餘年이 지났다. 지금까지 專門的인 教育과 技術을 배양해 왔으며 先進諸國에서 圖書館學을 마치고 돌아온

同職者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또 現在 海外에서 碩士와 博士課程을 修學中인 人도 多數 있으나 國內의 學徒나 實務者가 研究하려면 大部分 外國文獻에 의뢰하는 수 밖에 別道理가 없었다. 外國語를 解讀하는 사람 보다는 解讀하지 못하는 數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專門職으로서의 自己의 著書가 없다는 것은 司書職의 權威를 높이는 데도 커다란 handicaps의 하나였다. 韓國의 圖書館學은 60年代에 있어서 基盤을 굳히는데 커다란 功績을 한 셈이다. 圖書館運營 參考文獻이 우리들의 功績을 協同과 努力으로 大部分 이루어지고 이제 細部的인 面에서 研究開拓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個人들의 희생을 줄이고 筆者에게 經濟的으로 도움을 주고자 韓國도서관학 叢書발간계획이 豫定대로 進行中에 있다. 이 計劃이 完成되는 72년에는 叢書 總30권(번역叢書 10권포함)이 發刊 完了될 것이다. 이와 平行하여 圖書館의 奉仕를 擴大하고 잡자는 자료를 활용시킴은 물론 근대화 작업에 필요한 새로운 計劃이 推進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圓滑히 추진되어질 때 協會의 自體收入을 올리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어질 것이다. 各 個人의 扎实的 열매를 얻는 研究가 계속되어 개인이나 協會, 나아가서 國家와 圖書館發展에 기여 있기 바라는 바이다.

### 10. 協會 會館 建立

數年前부터 會館 建立의 必要性은 時急을 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資金이 投資되어야 하기 때문에 現在의 協會 살림으로는 任事를 내기가 힘든 處地이나 지상의 목표인 회관건립준비를 위하여 每年 계속해서 積立을 서두르고 있다. 70年代는 먼저도 말한 바 있으나 協會가 青年期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獨立과 自立的 覺悟로 會員들의 積極적인 協助가 힘으로 湧出한다면 70年代 前半期의 준비로 後半期에는 기필코 會館을 가지고 自立해 나갈 것으로 展望하고 싶다. 이러한 時期가 빠르게 닥아오도록 하려면 우리들의 誠意있는 努力과 當局의 보다 積極적인 지원이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 結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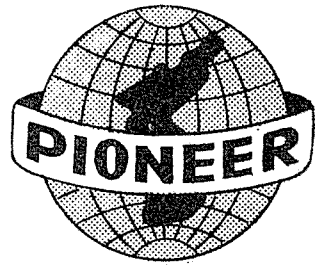
이상에서 말한 여러가지 事業外에도 本 協會가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새로 設計되는 計劃들에 대한 즐거찬 努力과 積極的인 參與로 協會의 自立的 度를 높이고 強力한 圖書館 行政의 施行으로 획기적인 發展의 時期가 되어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特히 圖書館人들의 經濟的인 富가 이루어지고 所期의 目的이 達成되는 大望의 年代가 되기를 祈願하는 바이다. 이 外에 여러 가지 열거되어야 할 問題가 많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됨을 양해 있기 바란다.



## 1970

#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預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限 世界의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貴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부와 單行本부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應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貴下께서 아직도 폐사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的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 파이오니아書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폰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號  
 電話 (74) 4 8 5 5 · (75) 4 · 1 5 5